

후기 : 이 프로젝트가 어느 구체적인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홍보의 성격이 너무 두드러져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면 나는 예술이 그 보편성의 경계를 넘어 현실로 확장될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. **현실적 구체성.**

더불어 양평으로 상징되는 팔당 상수원 지역의 현실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현재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물 문제에 대한 관심 촉발과 상수원 관리 지역과 소비 지역 즉, 팔당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간의 정서적 편차 극복의 시도는 공공미술의 목적성에서 출발되었음을 밝혀둔다.